



공존 99x138cm 혼합재료 2011

이경림,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리라

이경림의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상식을 뒤집는 발상과 뜻하지 못한 사실과의 조우가 신신하게 다가온다.

그의 작품은 골판지의 결합으로 이뤄진 콜라주 작업이다. 골판지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발상이다. 물건을 튼튼하게 포장하는 용도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너털거리는 골판지는 영락없이 쓰레기통 속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구질구질한 쓰레기를 보석으로 바꾼다거나 할까. 작가는 재료의 한계를 허물어 넘듯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 일종의 폐품 재활용 작업인 셈이다.

하늘은 청명하고, 거리는 무성한 나무들이 즐비하며 활력으로 넘쳐난다. 삭막한 도시와는 다르게 각 집의 앞정자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듯하다. 이런 그림을 보고 싶다면 정겨운 도시 풍경에 머리동경해지기까지 한다. 작가의 그림에서 도시는 '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섞인 광경이다.

화면은 크고 작은 골짜기 조각들이 이웃하고 있다. 대충 알개만 이어진 것 같지만 서로 각을 맞추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각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전체는 부분들로 출출히 직조되어 있다. 각 조각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자신을 맞출 듯하다. 인접면과의 조화는 물론이고 전체 구성의 짜임에 맞추어서 말이다. 큰 것은 작은 것에, 직선은 곡선에, 넓은 것은 좁은 것에 각각 맞추며 동행한다. 이렇게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야 한 점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거기에 색채와 패턴, 이미지들을 새겨 넣는다. 어떤 것은 줄무늬와 물방울, 글자, 드로잉, 색칠하기 등으로 화면을 조밀하게 채워간다.

이런 조각모음들로 작가가 나타내는 것은 도시풍경이다. 그림을 보면 화면 중심에 길이 뻗어 있고, 그 주변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인듯 보기에 평범한 도심 혹은 마을 풍경을 옮긴 것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하면 쉼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빠른 메연으로 가득한 하늘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그림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전혀 판판이다. 하늘은 청명하고, 거리는 무성한 나무들이 즐비하며 활력으로 넘쳐난다. 삭막한 도시와는 다르게 각 집의 담장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듯하다. 이런 그림을 보고 싶다면 정겨운 도시 풍경에 머리동경해지기까지 한다. 작가의 그림에서 도시는 '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섞인 광경이다.

〈천개의 평화〉를 보면 도시 외곽의 주택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오른쪽에 길목이 보일 뿐 주위는 무성한 나무숲처럼 아찔하기만 짝퍽하다. 마치 성냥갑을 포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레고를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도 도시민들의 거주지



서울풍경 121x81cm mixed media 2010

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지붕과 벽을 알록달록한 색상과 화려한 패턴으로 꾸며 놓았다. 그림으로써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도타운 인정을 나누며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곳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동네를 이처럼 형형색색으로 장식한 것은 이 그림이 '행복'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공존〉은 달동네 풍경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가파른 골짜기를 끼고 좌우에 주택이 들어져 있다. 그 흔한 기와집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공간이 집안의 나무들이 보일 따름이다. 가파른 언덕위에 간신히 자리한 집이 있는가 하면, 집과 집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도 없이 밀집된 데도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달픈 인생살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느낌도 잠깐, 작가는 한 채 한 채의 집마다 예쁘게 색칠을 하고 단장을 한다. 그리하여 우중충한 느낌을 말끔히 지우고, 돌연 이곳을 희망 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네의 '그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꾸밈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상의 삶이 곤궁해도 밤사에 감사를 느끼기에 삶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기 하면 <서울풍경>은 동산 아래로 동지를 트는 어느 마을을 옮긴 것이다. 뒤로는 우람한 산과 야트막한 동산이 보이고, 그 앞으로 채동욱 입은 가옥들이 길을 마주하고 죽는 어서 있는 작품이다. 앞 작품이 달동네라면, 이 작품은 현직인 마을을 나타냈다. 그는 여기서도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눈을 사람에게로 돌린다. 물론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사람은커녕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천개의 팔각 158cmx294cm mixed media 2011

그럼에도 이 그림에는 소망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작가가 내적인 눈으로 본 세상을 포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세상은 하나님이다. 다스리는 땅이요, 언약이 성취될 무대다.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희망의 불길도 꺼지지 않는다. 그가 도시를 밝게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리라. 세상이 불의와 죄악으로 사라질 곳임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인간의 두 얼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도시 외면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내면은 빈곤하고 혐오하다. 도시에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도시를 혹도 미에*나 쿠르베*가 그랬다면 매우 신랄한 비판과 조소의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다. 도시생활을 혐오한 밀레가 아예 시골에 들어가 농촌화가 돼 버린 것은 단순한 충동이나 일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도시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서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의 서식처이다. 또는 리처드 에스테스의 그림에서 할 수 있듯이, 휘황찬란하지만 높은 건물과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역대 회화들은 도시가 얼마나 황폐하며 물질화되어 있는가를 직시하였다. 우리가 사는 주위를 돌아보아도, 그들의 시각이 엉뚱하다거나 찻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은 대체로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종의 뇌관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경림은 도시에서 꿈을 찾는다. 도시의 문제를 들추어내기에 앞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끄집어내길 바라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평화가 강물처럼

도미에, 루르베, 프랑스의 시골주의 화가들

림 흐르고 사랑을 만신으로 신고 귀항하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작가는 아무리 험벗은 도시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루벤 알레스(Rubem Alves)가 “소망은 미래를 향한 음악이며, 믿음은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고 말한 것처럼, 소망과 믿음은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익히 알고 있는 도시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소망이 단절되고 삭막한 곳이 아니라,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사계절 생동감이 솟아나는 곳으로 말이다. 그에게 도시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다. 왜냐하면 짐들이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파출에서 한 부분을 빼내면 전체가 망가지게 되듯, 그의 그림에서도 어느 한 곳이 빠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작가는 소망에 ‘영혼의 빛’을 내리고, 믿음의 리듬에 스펀을 맞추어 ‘별로 가는 여행’을 시작한다. 아무리 황폐한 도시라도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보면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에서 죽은 뼈에 힘이 줄이 불고 생기가 불어 살아나는 것을 본 것처럼(겔 37:1~14),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상상하며 구상한 것 같다. 그 많은 재료 중에서도 굳이 성치 않은 폐품을 선택한 것, 혹은 이를 다시 찬란한 준재료로 바꾼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면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작가는 만신창이의 골판지를 재생하여 멋진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가 정말 ‘생기’ 있는 도시로 재탄생될 것을 소망해 본다. 그런 뜻에선 어떤 사람도 무한경쟁으로 실의에 빠지거나 역명을 가장해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일, 혹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는 등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가 바라는 도시란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에스겔 골짜기처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하셨던 대로 돌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염원이 이런 염원이 부분 기대감으로 전달돼, 그의 그림을 한층 기운차게 만드는 비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서성복 연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전’,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타자다움’,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이경림은 도시에서 꿈을 찾는다.
도시의 문제를 들추어내기에 앞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끄집어내길 바라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을 만신으로
신고 귀항하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작가는 아무리 험벗은
도시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